



4TH INDUSTRIAL REVOLUTION

제3회 미래 일자리 공모전

당신의 '미래'를 디자인하라!

- 명칭** 제3회 미래일자리 공모전
- 응모기간** 2019. 7. 10(수) ~ 8. 27(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초등·중학생/일반부)
- 응모분야** UCC/웹툰/포스터/VR/일러스트 등 자유서식
- 제출자료** 작품 1점, 응모지원서 1부
- 제출방법** 이메일 hrd-festival@daum.net 제출
* 직접 그린 그림의 경우, 우편 제출 허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22, 한국출판콘텐츠센터 408호
공모전 운영사무국 앞(제출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접수문의** KakaoTalk [@plus199](#) 직업능력의 달

* 공모전 상세 정보 및 응모지원서 다운로드는
직업능력의 달 홈페이지(<http://hrd-festival.org>)에서 확인 가능

심사 방법 발표심사(70%)+현장 청중평가(30%)

시상 내역

구분	시상명	상금 및 부상	인원	
초등학생 중학생	금상	상금 50만원	2명	
	은상	상금 30만원	2명	
	동상	상금 20만원	3명	
	장려상	상금 10만원	5명	
	특별상	EBS 사장상	기념품	1명
일반부 (고등학생 포함)	금상	상금 100만원	1명	
	은상	상금 50만원	2명	
	동상	상금 30만원	1명	
	특별상	EBS 사장상	기념품	1명

* 시상 내역은 공모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발표·시상 2019. 9. 10(화), 코엑스(예정)

HRD KOREA

능력중심사회의 디딤돌 한국산업인력공단

vol. 278
AUGUST 2019

08

나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있다



CONTENTS

2019 8 Vol. 278

04 CEO 칼럼

시시대 직업능력개발

발행일 2019년 8월 1일

발행인 김동만

편집인 김선영

등록번호 울산중, 라00006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교동)

전화 052.714.8195 팩스 052.714.8200

제작 디자인 송일미디어그룹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26번길 3

전화 070.4219.7482

www.smgcorp.kr

월간 「HRD KOREA」는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지원, 해외취업, 숙련기술장려 및 기능경기 등 국가인적자원개발(HRD) 사업에 대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매월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게재된 외부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 꿈이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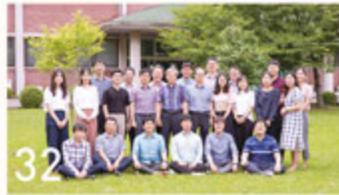


06 스페셜 테마 1·2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10 스페셜 테마 3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32 미래를 키우다



26 트렌드 리포트

무더운 한여름 밤, 시원한 브루어리 맥주!

28 직방탐구

기업이 원하는 리더십

30 NCS 완벽 대비

스마트 설비 설계

32 HRD 탐방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36 공감수기

2018 해외취업 성공스토리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 구자경



22 사람이 힘이다



12 집중 HRD 1

한국산업인력공단, 2019년 신규직원 121명 채용

16 집중 HRD 2

취업 잘 되는 국가기술자격 20선

18 땀으로 일군 값진 인생

우수숙련기술자 박경애 (담다헌 관장)

22 화제의 인터뷰

해민스님



38 HRD와 함께



38 이달의 심포

운동주문학관과 운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42 청렴轉세상

강용찬 목원대 무역학과 명예교수

44 HRD 뉴스

공단, DGB금융지주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및 확산 업무협약 체결 외

46 우체통



HRD

THEME
x

나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있다

Whatever you can do or dream you can, begin it.
Boldness has genius, power, and magic in it.

당신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다고 꿈꾸는 모든 일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 그리고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 Johann Wolfgang von Goethe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오는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태극마크를 달고 도전하는 국가대표선수 52명에게 힘찬 응원을 보낸다.



AI 시대 직업능력개발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 지난 7월 내한한 일본 최대 부호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근로자’로 불리는 로봇에 혼을 불어 넣는 것과 같다. 한국이 닥칠 생산인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손 회장 의견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무인배송 로봇’이 도로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초고령화에 따른 택배 배송 인력 부족으로 물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한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생산방식 변화에 따른 ‘직업능력 전환’이 필수조건이다. 요즘 선진국에서는 ‘직업능력 전환’에 기업이 앞장서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프랑스 이동통신기업 ‘Free’의 그자비에 니엘 회장은 사비 약 900억 원을 투자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를 육성하는 사회공헌형 인재육성기관 ‘에폴42’를 만들었다. 니엘 회장의 기업운영 노하우에 따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과서도 강사도 없는 혁신적인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업체 아마존도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물류와 배송 담당 인력 10만 명에 대해, 고급업무 재교육으로 8천억을 들이기로 했다. 민간기업 재교육 규모로는 최고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기업들은 직원 직무교육과 훈련을 스스로 주도하고 있다. 기업에 꼭 맞는 직무교육이 AI시대 생산성 제고의 지름길이자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기업이 주도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부터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 현장훈련’ 지원 사업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진단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뽑아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이 주도하는 훈련이다. 이와 같은 ‘기업 맞춤형 훈련’을 통해 기업은 경쟁력 제고와 근로자는 직무역량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서 재참여와 타 기업에 추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현재 ‘기업 맞춤형 현장훈련’ 참여 중인 기업은 206개에 달하며, 공단은 올해부터 전문 컨설팅 및 훈련 절차 등을 지원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5개 권역 훈련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활용, 연말까지 기업 발굴을 확대해 전국에서 170개 기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 경기가 있는 지 벌써 만 3년이 넘었다. 당시 경기결과가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은 엄청나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생겼다. 그러나 인간이 개를 키운 지 1만 8천년이 되었지만 개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듯, 인공지능의 사용은 오히려 사람의 존재와 역할을 더욱 뚜렷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인공지능과 협력할 때 ‘생산성 제고에 따른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저감’이라는 긍정적 사회변화까지도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세계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을 기대해 본다. HRD

2019년 8월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 동 만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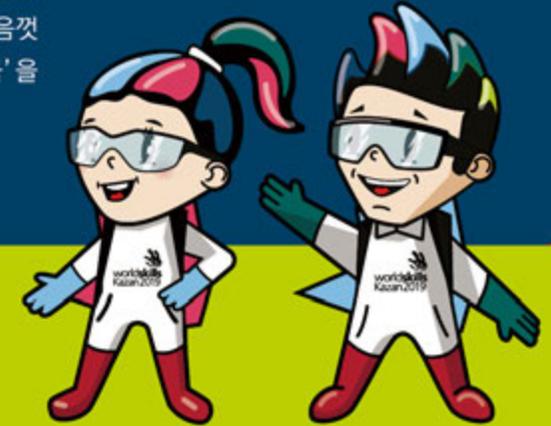
1950년부터 시작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회원국 청소년간 기능을 교류하며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능 개발을 촉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WorldSkills Kazan 2019)가 오는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KEIEC(Kazan Expo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에서 열린다. 8월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를 펼친 후 27일 시상식을 개최하는 일정이다.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의 산업시찰도 예정돼 있다.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는 68개국 1,300여 명의 선수들이 총 56개 직종에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47개 직종, 국가대표선수 52명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가 서른 번째 참가하는 대회. 2017년 10월에 열린 제44회 UAE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달리 클라우드 컴퓨팅, 수처리기술, 산업기계설비, 중장비정비, 조경 등 5개 직종, 6명의 국가대표선수가 새로 참가한다. 국가대표선수뿐 아니라 국제지도위원 47명, 통역 47명도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메달 수상자에게 상금과 훈·포상을 수여하며 기능숙련인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금메달 수상자에게는 동탑산업훈장 포상과 상금 6,720만 원을, 은메달 수상자에게는 철탑산업훈장 포상과 상금 5,600만 원을, 동메달 수상자에게는 석탑산업훈장과 상금 3,920만 원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혜택과 함께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 대학진학자 장학금·계속종사장려금 지급 등의 특전도 마련돼 있다.

한국 국가대표선수들은 지난 2월 16일 입소식을 시작으로, 7월 19일 결단식에 이르기까지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려왔다. 국가대표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후회 없이 경기에 임하며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HRD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요

- 주최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주관 :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기간 : 8월 22~27일 6일간
- 개최장소 : KEIEC(Kazan Expo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 경기 직종 : 총 56개 직종
- 참가 규모 : 68개국 1,300여 명
- 우리나라 참가 규모 : 47개 직종, 국가대표선수 52명, 국제지도위원 47명, 통역 47명
- 우리나라 신규 참가 직종 : 클라우드 컴퓨팅, 수처리기술, 산업기계설비, 중장비정비, 조경 등 5개 직종에서 국가대표 선수 6명

세계 청소년들의 기술 경연의 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스포츠 기량을 겨루는 올림픽이 있다면, 세계 청소년들의 기술을 교류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해 온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있다. 1950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처음 열린 국제기능올림픽은 기능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다. 1950년부터 2017년 제44회 UAE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까지 총 1만 5,544명의 세계 선수들이 경쟁했다. 이번 8월에는 러시아 카잔에서 제45회 대회가 열린다.

우리나라 첫 참가 대회 1967년 제16회 스페인 대회

우리나라는 1967년 제16회 스페인 대회에 첫 참가했다. 9개 직종 국가대표 선수가 세계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하며 경쟁한 결과,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6위를 기록했다.



기술강국 대한민국 19 회 종합우승

우리나라가 첫 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한 대회는 1977년 제23회 네덜란드 대회였다. 제23회 대회부터 제31회 대회까지, 제33회부터 제37회까지, 그리고 제39회부터 제43회까지 총 19회에 걸쳐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면모를 세계에 알렸다.



우리나라 대표선수단 최근 참가 규모

2013년 제42회 독일 대회



2015년 제43회 브라질 대회



2017년 제44회 UAE 대회



우리나라 대표선수단의 최근 성적

2013년 제42회 독일 대회



종합우승



금메달 1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

2015년 제43회 브라질 대회



종합우승



금메달 13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

2017년 제44회 UAE 대회



금메달 8개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이 지난 7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개최됐다. 1967년 첫 참가 이래 최대 규모인 47개 직종, 52명의 국가대표선수로 구성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 구성, 지난 2월부터 고강도 훈련 돌입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단이 7월 19일 열린 결단식에서 이번 대회 선전을 다짐했다.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단은 지난 대회에 비해 클라우드 컴퓨팅, 수처리 기술, 산업기계설비, 중장비정비, 조경 등 5개 직종, 6명의 국가대표선수를 새롭게 선발, 47개 직종, 총 52명의 국가대표선수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가 1967년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최초로 출전한 이후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 국가대표선수들은 8월 22~27일 열릴 이번 대회에서 최상의 기량을 펼치기 위해 지난 2월 16일부터 강도 높은 집중 훈련에 돌입해 왔다.

이번 결단식에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국가대표선수, 국제지도위원, 국가대표선수 가족, 지도 교사, 기업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국가대표선수 한 명 한 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결단식장에 등장해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참석자들로부터 힘찬 응원의 박수를 받는 국가대표선수단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가대표선수단에 "그동안 열심히 갈고닦은 기술로 세계 무대에 당당히 도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기능 한국의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격려했다. 김동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회에서 침착함과 담대함, 집중력을 발휘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대표선수를 대표해 정보기술 직종 이민지 선수와 배관 직종 조우의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위 선양을 다짐하는 출전 신고를 했다.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단은 총 174일 동안의 강화 훈련을 마무리하고, 8월 중순 러시아로 향해 대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HRD



정보기술 직종 이민지 선수와 배관 직종 조우의 선수의 이번 대회 출전 신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선수단기를 받는 김동만 회장

5주 동안 신규직원 입직교육 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2019년 신규직원 121명 채용



2019년 신규직원 121명을 채용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7월 1일 임용식 개최를 시작으로 8월 2일까지 5주 동안 신규직원 입직교육에 나섰다.



지난 7월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에서 열린 2019년 신규직원 임용식



신규직원 환영행사로 열린 꽃길 걷기

7월 1일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신규직원 121명을 채용하고, 지난 7월 1일 오후 3시 공단 본부에서 2019년 신규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서는 신규직원이 앞으로 펼쳐 나갈 활약을 기대하며 꽃길걷기 환영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김동만 이사장이 신규직원들이 걸어가는 길에 꽃잎을 뿌려주며 이들에게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1일~8월 2일 신규직원 입직교육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1일부터 신규직원 입직교육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No.1 HRD 파트너'를 지향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신규직원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반으로 직무사업과정(Knowledge), 실무공통과정(Skill), 입직과정(Attitude)으로 구성됐다. 직무사업과정(Knowledge)은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능력개발, 능력평가 등 사업별 직무교육으로,

실무공통과정(Skill)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가치체계, 인터넷 시스템 등 조직과 경영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뤄졌다. 입직과정(Attitude)은 특강, 비즈니스 매너, 팔로워십, 팀빌딩 등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규직원 입직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3주차에는 입직과정, 실무 공통과정을 통합교육했다. 전보인사발령이 난 4~5주차에는 담당 사업별로 분반해 직무사업과정 교육을



2019년 신규직원 임용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동만 이사장



신규직원 입직교육 중
'핵심가치 함양 단체 시너지 아트' 프로그램



진행했다. 탄탄한 입직교육 운영을 위해 실무반을 구성하는 한편, 사내강사 인력풀을 구축, 양성해 입직교육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신규직원 열정 빛난 입직교육 현장

신규직원 입직교육 현장은 이들의 열정으로 가득했다. 지난 7월 4일에는 '핵심가치 함양 단체 시너지 아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전인 '전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키우는 No.1 HRD 파트너'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핵심가치인 △화합·소통(Harmony) △책임(Responsibility) △다양성(Diversity) △전문성(Know-how)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이었다. 11개 조로 나뉜 신규직원들은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전체 콘셉트를 도출하고, 저마다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나갔다.

신규직원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집중해 스케치를 하고, 색칠해 나갔다. 물감을 칠하는 손에서, 의견을 나누는 얼굴에서 신규직원들의 열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드디어 11개의 캔버스가 모여 핵심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커다란 그림 하나가

완성됐다. 신규직원들의 표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인(人)'이라는 자부심과 하나의 미션을 힘을 합쳐 완성해 낸 뿌듯함을 엿볼 수 있었다.

신규직원들은 5주차 총 132시간의 입직교육을 마치고 발령받은 부서에서 현장훈련(OJT)을 받을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으로서 첫 발을 댄 2019년 신규직원들. 이들이 능력중심사회의 디딤돌을 놓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핵심 인재가 되어 무한히 비상하기를 응원한다. HRD



2019년 신규직원들의 한마디

Mini Interview



김찬우
주임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앞두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채용돼 기쁩니다. 이번 신규직원 중 최연소 신규직원인데요, 학교에선 한국산업인력공단 첫 번째 입사자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소라
주임



"울산 청년구직자를 위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취업역량을 강화한 덕분에 공단에 성공적으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단의 다양한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당당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아란
연구원



"귀금속·보석을 전공하고 5년 동안 관련 분야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다 공단 출제연구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입직교육이 알차게 구성돼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귀금속·보석 업계 발전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태
대리



"경력은 없지만, 공단 블라인드 채용에서 각오와 열정을 인정받아 채용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합격으로 효도할 수 있어 기쁘고요. 체계적인 입직교육을 받으며 공단이 신규직원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대에 부응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구인 기업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기술자격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취업 잘 되는 국가기술자격 20선



2018년 워크넷(www.work.go.kr) 구인 공고 약 118만 건을 분석한 결과, 구인 기업이 많이 찾는 국가기술자격 1위는 지게차운전기능사, 2위는 건축기사, 3위는 한식조리기능사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워크넷 구인 공고 중 23.8%는 채용 시 자격을 요구하거나 우대했고, 특히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할 때는 자격증이 없을 때보다 25만 8천 원 높은 월 평균 임금 225만 9천 원을 제시했다.

1위 지게차운전기능사
구인건수 **7,376**

2위 건축기사
구인건수 **7,162**

3위 한식조리기능사
구인건수 **6,682**

4위 전기기사
구인건수 **4,017**

5위 토목기사
구인건수 **3,489**

6위 전기산업기사
구인건수 **3,086**

7위 전기기능사
구인건수 **2,953**

8위 직업상담사2급
구인건수 **2,855**

9위 용접기능사
구인건수 **1,732**

10위 정보처리기사
구인건수 **1,717**

11위 건축산업기사
구인건수 **1,422**

12위 전기공사산업기사
구인건수 **1,296**

13위 에너지관리기능사
구인건수 **1,281**

14위 자동차정비기능사
구인건수 **1,203**

15위 컴퓨터활용능력2급
구인건수 **1,140**

16위 건설안전기사
구인건수 **1,059**

17위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구인건수 **1,055**

18위 전기공사기사
구인건수 **1,046**

19위 수질환경기사
구인건수 **861**

20위 산업안전기사
구인건수 **854**



워크넷 구인 공고 23.8%는 자격 요구·우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의 지난해 구인 공고 118만 1,239건을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분석한 결과, 28만 1,675건(23.8%)이 채용할 때 자격을 요구하거나 우대했다.

지난해 워크넷 구인 공고 중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는 8만 4,893건으로, 전체의 7.2%였고, 기타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는 19만 6,782건, 16.6%를 차지했다. 구인 기업이 제시한 월 평균 임금은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할 때 225만 9천 원, 자격증이 없을 때 200만 1천 원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할 때가 25만 8천 원이 더 높았다. 이와 함께 기타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월 평균 임금 204만 6천 원)보다 국가기술자격을 필요로 할 때, 월 평균 임금이 21만 3천 원 높았다.

전기 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취업 유리

구인 공고에서 많이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 1위는 지게차운전기능사로 나타났다. 지게차운전기능사 보유자를 구하거나 우대하는 지난해 구인 공고 수는 7,376건이었다. 이어 2위는 건축기사, 3위는 한식조리기능사로 집계됐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구직자가 취업에 유리한 분야는 전기 분야로 나타났다. 구인 공고에서 많이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 중 4위가 전기기사, 6위가 전기산업기사, 7위가 전기기능사, 12위가 전기공사산업기사, 18위가 전기공사기사로, 국가기술자격 20위 안에 5개 자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직업상담사2급이 8위, 컴퓨터활용능력2급이 15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구인 공고 수 비중이 높은 업종은 건설업, 전기·가스 등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구인 건수 7만 492건 중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는 30.8%인 2만 1,715건이었다.

한편, 자격증 전체로 살펴보면 구인 공고가 많은 자격증 1위는 자동차운전면허, 2위 요양보호사, 3위 사회복지사, 4위 간호조무사, 5위 보육교사의 순이었다.

2018년 약 69만 명, 국가기술자격 취득

2019년 6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국가기술자격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국가기술자격에 약 349만 명이 응시해 약 69만 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취득자 수가 1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결과다.

무엇보다 구인 기업에서 많이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대체적으로 많이 취득했다. 건설과 전기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많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험물과 산업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3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지게차운전기능사였다. 남성 전체를 살펴봤을 때, 1위 지게차운전기능사(3만 5,819명), 2위 굴삭기운전기능사, 3위 전기기능사, 4위 정보처리기사 4위, 5위 정보처리기능사로 나타났다. 여성은 1위 한식조리기능사(1만 8,643명), 2위 미용사(일반), 3위 미용사(네일), 4위 미용사(피부), 5위 미용사(메이크업) 순이었다. HRD

교육으로 우리나라 떡 문화를 발전시키다

우수숙련기술자
박경애 (담다헌 관장)

지난해 식품가공 직종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된 박경애 담다헌 관장은 우리 떡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떡 레시피를 체계화하고, 몸이 건강해지는 약선 떡을 개발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 있는 박경애 관장을 담다헌에서 만났다.



위기가 기회로, 2005년 화재가 이끈 제2의 인생

자신이 떡을 만들고, 떡 만드는 법을 교육하리라곤 생각도 못했던 박경애 관장. 결혼과 함께 떡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시부모님은 1971년부터 의정부제일시장에서 복덕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었고, 박경애 관장은 시할머니까지 모시면서도 가족 사업인 떡집에 일손을 보탰다. 1985년 시부모님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박경애 관장이 떡집 운영을 본격적으로 맡게 됐다.

그러던 중 2005년 7월 떡집에 화재가 났고, 영업을 바로 재개하기는 어려웠다. 남편이 이참에 휴식을 제안했다. 박경애 관장은 쉬는 시간 동안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평소 고민했던 부분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박경애 관장은 떡을 능숙하게 만들어 내기까지 그동안 겪었던 고생들을 떠올렸다.

“시어머니께 떡 만드는 법을 여쭙보면 ‘쌀 한 말에 소금과 물은 이 정도’라고만 설명해 주셨어요.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비율을 설명해 주셨지만 요리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g 같은 정확한 레시피가 없었어요. ‘소금 적당량’이라는 표현이 가장 어렵잖아요? ‘말’ 같은 부피 기준이 아닌 무게 기준으로 바꿔 떡 레시피를 체계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꼽힐 정도로 사랑받고,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나라 음식문화다. 박경애 관장에게 떡은 김치 못지않게 소중한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다. 떡에는 식품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다양한 변신이 가능하다. 박경애 관장에 따르면, 멥쌀로 떡을 만드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떡은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는 김치와 달리 보관이 어려워 수출하기 어려운 품목이다. 그래서 떡 교육에 주목했다. 박경애 관장은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떡 문화가 자연스럽게 꽃피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떡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고,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해 나갔고, 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대학에도 진학했다. 2009년 드디어 떡을 비롯한 우리의 음식문화를 배울 수 있는 체험교육관 ‘담다헌’을 개관했다. 같은 해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제3회 전국 떡 명장 선발대회에 나가 대상을 받으며 경기도가 선정한 떡 명장이 됐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떡 레시피를 정리하고, 떡을 전문적으로 배우며 체험교육관 ‘담다헌’ 개관에 이르기까지 2005년 화재는 박경애 관장에게 기회가 됐다.

떡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즐길 담(澁), 많을 다(多), 집 헌(軒)이라는 단어를 조합해 만든 '담다헌'은 '즐기고 배울 것이 많은 집'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담다헌에서는 어린 아이부터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 가족, 성인에 이르기까지 떡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떡은 물론, 떡케이크, 한과, 두부, 김장, 장 담그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웨프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도 제공한다.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바른 식생활 우수 체험 공간 12호로 지정됐고, 2015년엔 6차 산업 사업자 인증, 식품분야 신직업 교육장 지정, 2017년에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도 받았다.

박경애 관장은 2018년 8월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명장이라는 반열에 당당히 오르고 싶지만 경력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아쉬움도 있다. 결혼 후 지금까지 40년 넘게 떡을 만들고 떡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지만, 사업자나 직원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떡을 포함한 식품가공은 가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나 직원이나 이런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족 사업에 참여하며 기술을 쌓아 왔습니다. 경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떡제조기능사가 2019년 신설되기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떡제조 학습모듈을 공동집필하고, 자격 설계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한 박경애 관장의 요즘 관심은 약선 떡이다. 여름 떡으로 열을 식혀주는 연자육과 슈퍼푸드 사차인치를 넣어 백설기를 만든다. 체력증진, 두뇌건강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약



선 떡 레시피를 소개하는 책도 올 하반기에 발간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이나 대량생산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사람이 직접 만드는 떡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떡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푸드트럭에서도 떡을 찌 판매할 수 있어요. 육류를 넣어 새로운 떡을 만들 수도 있고요. 떡을 포함한 식품가공 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중물이란 수도가 없던 시절, 펌프에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을 의미한다. 마중물이 있어야만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 떡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 온 박경애 관장. 2005년 화재를 경험한

후 자신도 놀랄 정도로 특유의 도전정신을 발휘하며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시키며 떡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박경애 관장에게 떡은 전통에만 머무르는 음식이 아니다. 떡은 가족 구성원끼리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바쁜 요즘, 함께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박경애 관장은 앞으로도 떡 교육에 매진해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의 떡 문화를 널리 알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HRD**

담다헌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939번길 98

전화 | 031-848-8523

홈페이지 | www.damdaheon.com

우수숙련기술자 박경애

- 1979년 결혼과 함께 떡제조 입문
- 2009년 경기도 선정 떡명장 (제3회 전국 떡명장 선발대회 대상), 담다헌 개관
- 2010년 바른 식생활 우수 체험공간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 2012~2015년 농업·농촌 농어민창업교육 (농림축산식품부)
- 2013년 김치교육기관 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14년 NCS 떡제조 학습모듈 공동집필
- 2015년 6차 산업 사업자 인증(농림축산식품부)
- 2016년 일학습병행 컨설턴트
- 2018년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10년, 20년 후를 걱정하지 말고,
한 걸음 앞에 있는 일에
관심을 갖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재미있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헤민스님

마음치유학교 교장이자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의 저자인 헤민스님이 오는 9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하는 직업능력의 달 행사 중 하나인 '제13회 인적자원개발콘퍼런스'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인적자원개발콘퍼런스는 인적자원 개발의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행사다. 인적자원개발콘퍼런스에 앞서 헤민스님을 만났다.

Q. 9월에 있을 '제13회 인적자원개발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참석자들을 만날 계획이신가요?

마음치유콘서트라고 해서 현대인들이 살면서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내고,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강연할 계획입니다. 심리를 치유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Q. 유튜브 '헤민스님TV'를 비롯, SNS를 통해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계십니다. 특히 스님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대방과 1:1로 만나기란 사실 쉽지 않아요. SNS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콘텐츠를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SNS 상에서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어 좋습니다. 제 경험을 솔직히 말하는 편인데요, 이는 타인과 좀 더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

람인지만 삶에서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전달합니다. 마음 속 솔직한 이야기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요.

Q.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해 온 요즘 젊은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와 취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위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이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무 능력을 키우기보다 남들이 다 하려는 경쟁률 높은 시험을 준비하죠. 또 시험에서 떨어지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담 삼아 스님의 길도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요, 진로는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대기업, 공무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관심 있는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해 보거나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실제 어떤지 이야기도 들어 보세요. 인생은 마라톤처럼 오랫동안 가는 길입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면 재미 있는지, 무엇을 할 때 좀 더 삶의 의미를 느끼는지 자세히 탐구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BTS가 되려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복제 불가능한 자기 스타일을 만들면 돼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어요. 돈이 전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 시작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남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계속 줄 때, 어느 순간 자신의 앞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 트위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책을 내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또 승려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교 신문사에서 칼럼 연재 요청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고사했지만 2주에 한 번씩, 3년 동안 연재하며 글 쓰는 훈련을 했습니다. 뭐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쓴 글을 모아 책을 내려고 했을 때 어떤 출판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죠. 그러다 첫 책 「젊은 날의 깨달음」을 냈고,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를 본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고, 그 인연이 리처드 기어가 방한했을 때 인터뷰 하는 기회로 이어졌어요. 또 다음 책들도 낼 수 있었죠.

Q. 취업에 성공하고도 일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너리즘이나 번아웃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을 오래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첫 번째로, 내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번아웃이 올 정도로 힘들면 쉬어야 해요. 쉬 수 없는 환경이라도 한 시간 일

씩 잠들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세요. 인터넷이나 TV 보는 시간을 줄여 잠을 더 자고, 출근할 때 3~4 정거장 앞에 내려 걸어 보세요. 그러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잠과 운동을 통해 채운 에너지로 새로운 분야를 배워보세요. 그러면 번아웃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징검다리 휴일이 있다면 연차를 써서 익숙하지 않은 곳을 여행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그래야 생동감이 생겨요.

Q. 앞으로 활동 계획을 소개해 주세요.

상담치유센터인 마음치유학교 일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또 명상 앱 '코끼리'가 8월 출시 예정인데요, 명상을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잠이 잘 오고, 인간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책은 내년 후반쯤이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쓴 글을 모아야지 좋은 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사보 독자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고 있다고 한다면,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끼겠죠. 자신이 선택을 해야 해요. 나를 위한 시간을 찾아내서 나를 위해줘야 해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꼭 보내세요. 이러한 시간은 누가 만들어 주지 않아요. 운동을 하거나 하다못해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스스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내가 해야지, 결코 다른 사람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HRD**

일보일경(一步一景).

한 걸음 걸을 때 하나씩 보여요.

많은 젊은이가 힘들어 하는 이유는 열 발짝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후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한 걸음 앞에 있는 일에 관심을 갖다 보면 앞서 이야기한 제 경험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평생직장은 없죠. 자신의 진로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점진적으로 알아가다 보면 앞으로 재미있는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무더운 한여름 밤, 시원한 브루어리 맥주!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여름이다.
요즘 개성 넘치는 국내 맥주들이 속속 등장해 소비자의 즐거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중소 규모 브루어리에서
생산한 맥주들을 소개한다.



맥주는 국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주류다. 한국조
세재정연구원이 2018년 7월 발표한 '맥주의 과세체
계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맥주는 2005년
부터 2016년까지 주류시장에서 평균 57.4%의 점
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추정) 맥주 점유율은
58.8%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국내 대기업 제조 3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드는 대신 중소 규모 브루어
리에서 만든 맥주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다.

제주맥주

제주맥주는 공식 출범 1년 만에 월 매출이 15배 이상
성장했다. 제주 유기농 감귤껍질을 사용해 만든 '제
주 화이트 에일'은 2018년 7월 수제맥주 매출 1위를
기록했다(수제맥주 업계 추산치). '반짝'이라는 뜻의
제주어 '펠롱'을 쓴 '제주 펠롱 에일'은 곳자왈을 모
티프로 만든 페일 에일이다. 양조장 투어도 인기. 양
조장 투어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7
시 사이 사전예약제로 이뤄진다.

제주맥주 양조장 |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62-11

이용금액 | 1만 2,000원

예약 | jejubeer.co.kr



굿맨브루어리

굿맨브루어리의 대표 제품은 힙한 서
울을 상징하는 '굿맨 서울라거'다. 북
은 맥아의 향이 더해진 고소한 풍미를
지녀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린다. 이
와 함께 기름진 음식에 상쾌함을 더하
는 '굿맨 IPA', 영국 스타일의 포터를
서울에서 재현한 흑맥주 '굿맨 서울포
터', 구수한 맛의 '굿맨 엠베에일' 등
다양한 매력의 맥주도 생산한다.

홈페이지 | goodmanbrewery.co.kr



플레이그라운드브루어리

플레이그라운드브루어리는 '하의별신굿탈놀이'를
모티프로 구성한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 제품
은 '젠틀맨 라거'. 체코 필스너 스타일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라거 맥주다. 태평스러운 양반탈 캐릭터를
입은 '젠틀맨 라거'는 깔끔한 맛과 부드러운 목넘김
이 특징이다. 일산과 송도의 텃하우스에서는 맥주와
품격 높은 식사를 즐길 수 있다. **HRD**

일산 텃하우스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이산로길 246-13(월요일 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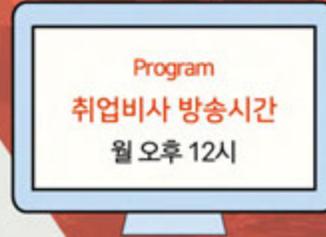
송도 텃하우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0, 힐스테이트 401동
139호(월요일 휴무)

홈페이지 | www.playgroundbrewery.com



기업은 지원자의 리더십을 평가하지만, 리더만을 뽑지 않는다

기업이 원하는 리더십



기업에서 원하는 리더십과 취업준비생이 생각하는 리더십이 다를 수 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직접 들어보았다. 인사담당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리더십을 중요하게 평가하지만, 리더십이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전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이 다르다

대기업이라면 리더십이 몸에 밴 지원자가 바람직한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회사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역량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만을 채용하지 않는다

채용 과정에서의 리더십 평가는 직원을 회사의 리더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단순히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한다고 볼 수 없다. 리더십이 취업의 전부는 아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면접 트렌드인 관찰 면접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어필하는 모습이 인사 담당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겸손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소수의 의견도 반영해 다른 사람들에게 적합한 업무를 분담시켜 줄 수 있는 지원자가 좋게 평가받을 수 있다.

리더십의 정의를 바꿔본다

조직을 이끈 경험이 없는 지원자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리더십의 정의를 바꿔보자. 누구나 집단에 속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고민해 보고, 이를 자기소개서에 솔직담백하게 쓴다. HRD



취업준비생이 궁금해 하는 리더십

Q. 리더십은 타고 난다?



리더로서의 자질을 타고 나기도 하지만, 리더십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도 키워진다.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자질 외에 매니지먼트 기법을 배워야 한다.

Q. 동아리회장보다 학생회장이다?



학생회장은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회장에 비해 반장이나 동아리회장 경험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사담당자들은 학생회장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기수를 이끌어 갈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Q. 군대에서의 리더십 경험, 안 쓰는 게 낫다?



자기소개서에 군대, 축구,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쓰지 않는 게 낫다. 군대 외에도 리더십을 경험할 기회는 많다. 기업은 지원자들이 군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고 기대한다. 군에서의 리더 경험으로 리더십을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다.

Q. 리더십은 평가 하지만 팔로우십은 평가하지 않는다?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팔로우십이란 조직에서 주어진 역할에 본인의 센스를 첨가하는 것으로, 광의의 리더십에 포함된다. 리더십은 팔로우십의 경험을 거쳐 완성되며 기업에서 팔로우십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공감능력, 배려 등을 평가한다.

15.기계 > 11.스마트 팩토리 > 01.스마트 팩토리 설계 > 01.스마트 설비 설계

'혁신 성장 8대 사업' 스마트 팩토리 만드는 스마트 설비 설계

스마트 팩토리란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생산공장을 뜻한다.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팩토리를 선정한 정부는 올해 예산 1조 300억 원을 투입, 스마트 팩토리 확산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에서 생산성 30% 증가, 품질 43.5% 향상, 원가 15.9% 감소, 납기 준수율 15.5%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스마트 설비 설계 직무의 정의

센서, 로봇, 계측 기술 등을 활용해 단위 설비의 기본 성능과 데이터 연결성을 고려한 설비를 설계하는 일이다.

스마트 설비 설계 기획이란?

(분류번호 1511010101_18v1)

설비의 요구 성능을 규정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최적의 설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술 규격을 검토하고, 설비 간 상호운용성을 분석해 기획하는 능력이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 국가기술자격

1. 메카트로닉스기사: 기계적, 기구적 메커니즘에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덧붙여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기계시스템을 설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생산자동화산업기사: 단위 기계별 생산(가공, 조립, 포장)품의 입고, 출고, 고정과 이송에 관한 부분 자동화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생산자동화기능사: 컴퓨터나 전기장치, 로봇이나 자동화 라인 등을 이용해 제품 생산 직무를 수행한다. HRD

※ 출처: 큐넷(www.q-net.or.kr)

상황면접 직업기초능력 문항 예시(정보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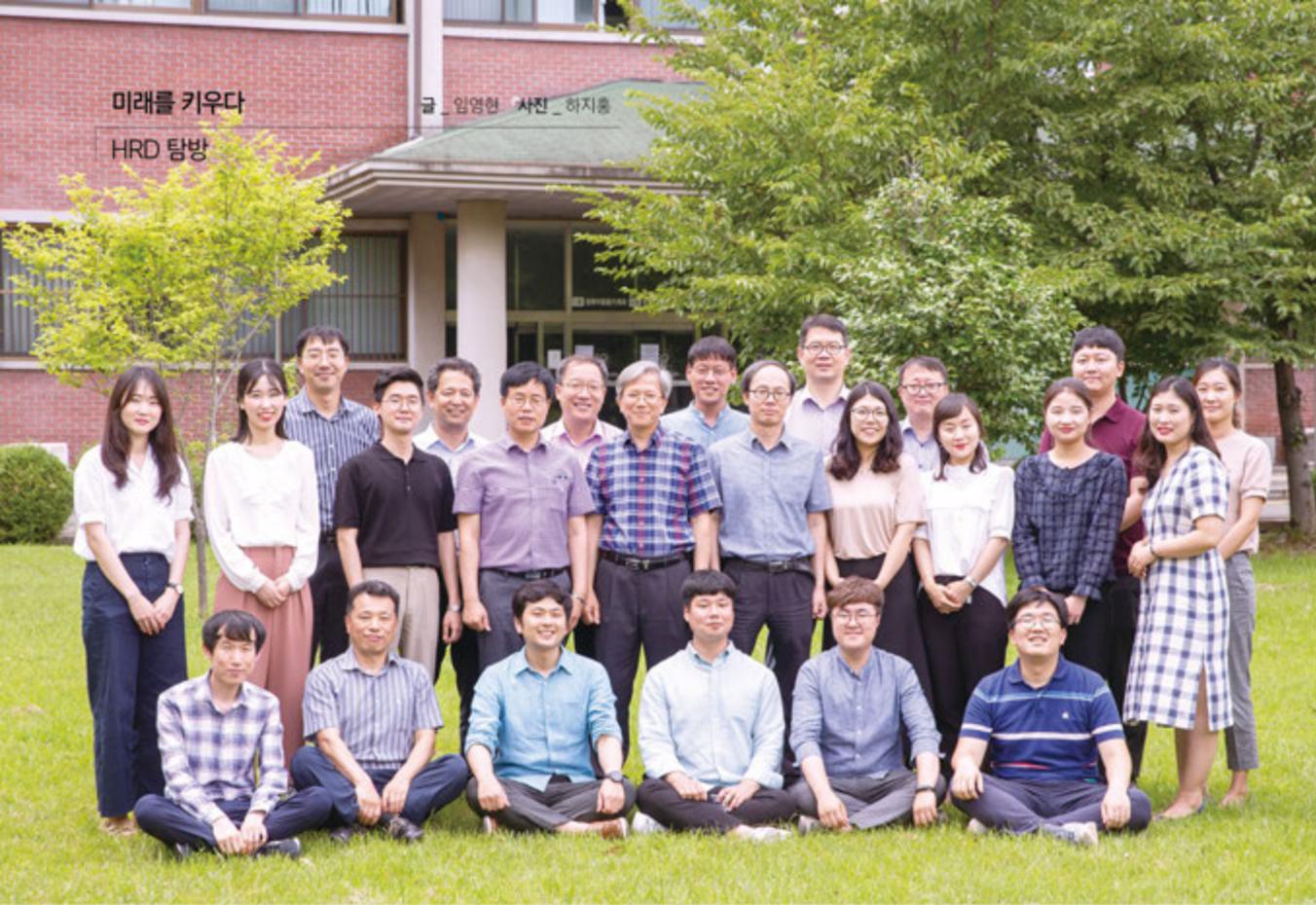
Q. 팀장은 당신에게 IoT가 직무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팀 스터디를 진행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실사례를 구성할 계획인가요?

※ 출처: NCS(www.ncs.go.kr) • 블라인드 채용 • 자료실 • 채용모델 면접문항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설비 성능 규정·평가하기 1511010101_18v1.1	1.1 고객요구 사항, 공정필요 사항을 고려해 설비사양을 규정할 수 있다. 1.2 시스템 모듈, 구성요소를 정의할 수 있다. 1.3 시스템 모듈, 구성요소를 평가해 시스템 전체를 평가할 수 있다.
	지식 ·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메인 시스템, 서브 시스템, 모듈, 구성요소의 기술규격에 대한 지식 · 공정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이해 · IoT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 등 신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지식
	기술 ·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요구사항을 문서화할 수 있는 능력
	태도 · 전후 공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태도 ·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태도 ·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는 태도
	· 설계요구에 대한 적극적 수용 · 신기술 센서에 대한 탐구하는 태도

※ 출처: NCS(www.ncs.go.kr)



(윗줄 왼쪽부터) 정지현 대리, 권은영 대리, 박성준 대리, 장혜민 대리, 김종득 과장, 박태오 부장, 정우식 차장, 송달영 이사장, 최상문 부장, 최영조 차장, 고정호 부장, 이해림 대리, 한영현 차장, 김나래 차장, 권아희 직원, 이준섭 주임, 하연주 대리, 김민정 공무원
(아랫줄 왼쪽부터) 배종오 대리, 김성태 부장, 홍석찬 대리, 김정환 대리, 허성준 주임, 문시은 과장

‘젊고 열린 조직 문화’로 기업과 근로자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는 1979년 6월 마산시 상남동에 한국기술검정공단 경남사무소로 문을 연 후 개소 40주년을 맞았다. 경남지역은 한국기계공업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는 경남지역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며 기업과 근로자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실기시험 관리 프로그램 자체 개발’ 등 끊임없이 성장하는 조직

- 개소 40주년이라는 역사를 지닌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자리 잡고 있다. 창원시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의 기계공업단지 중심 제조업, 거제·통영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의 조선업, 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산업 등 한국기계공업의 요람인 경남지역 5개 시, 10개 군을 관할한다. 이들 지역에는 사업체 22만 5천여 곳과 74만 8천여 명의 근로자가 있다.

경남지사에는 2019년 3월 발령받은 송달영 이사장을 포함, 직업능력개발부, 지역일학습지원부, 자격시험부, 상시자격시험부, 외국인고용지원부 등 5개 부서와 진주일학습지원센터에서 총 42명이 근무 중이다.

송달영 이사장은 인적자원개발(HRD)을 교육과 훈련, 역량개발에 한정하기보다 개인의 발전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모든 활동으로 폭 넓게 접근한다. “근로자가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여 조직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한 송달영 이사장은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해 일을 통해 행복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고객인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또 고민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사 관내 숙련기술인 인적자원은 300여 명이다. 경남지사는 이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아 중소기업체의 성과 향상을 위해 맞춤형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에 꼭 맞는 숙련기술인들이 기업을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학습병행 질 향상을 위한 CAP+(Consultant Alliance Program+)와 경남지사 소확청(소통, 확인,

청백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부터 운영 중인 CAP+ 프로젝트는 경남지사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숙련기술인, 일학습 전문 지원센터를 상호 연계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일학습 병행 OJT 훈련 품질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은 물론 기업 성과 향상까지 한 마디로 ‘최고의 일학습병행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다.

경남지사 소확청 프로젝트는 청렴행동실천을 위한 소통과 다양한 방식의 모니터링, 피드백, 성과 평가를 통해 숙련기술인인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 성과를 높이고자 진행 중인 사업이다.

송달영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관행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자세를 강조한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지사는 ‘실기시험 관리 프로그램 자체 개발’로 지난 6월 17일, 2019년도 상반기 우수제안 표창을 받으며 직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 자격시험부 전원이 약 4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실기시험 관련 행정업무를 프로그램화 했고, 이를 통해 실기시험 행정업무와 처리시간을 무려 50% 이상 경감할 수 있었다. 송달영 이사장은 ‘실기시험 관리 프로그램 자체 개발’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원들의 워라밸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송달영 이사장

송달영 지사장은 경남지사의 최고 강점으로 '열린 조직 문화'를 꼽았다. 그만큼 직원 내부는 물론, 외부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 경남지사 직원 중 80~90년대생은 60%이고, 90년생만 따지면 22%를 차지한다. 송달영 지사장은 「90년대생이 온다」를 흥미롭게 읽고, 직원들에게 추천하면서 직원과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나서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내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면서 직원 간 소통을 강조하고, 나아가 직원이 행복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과 고객이 행복한 경남지사

- 직업능력개발부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현장교수 지원 등 15개 능력개발사업을 수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관내 1만 1,300개 사업장에서 8만 800명이 능력개발사업에 참여했다. 김종득 과장은 "다양한 능력개발사업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지역일학습지원부는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된 창원시를 중심으로 고용위기지역인 통영·거제를 비롯한 경남 전체의 일학습병행,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CAP+ 프로젝트 역시 지역일학습지원부가 진행한다.

자격시험부는 47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집행한다. 시험이 치러질 때마다 전 부서원이 회차 담당자를 돕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정지현 대리는 "수험 인원이 많고, 거제, 거창, 삼천포, 함양, 창녕 등 장거리 시외 출장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탄탄한 팀워크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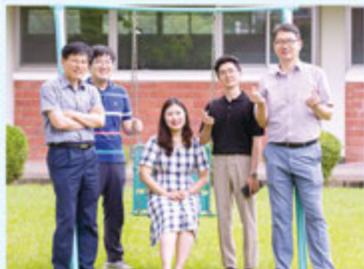
상시자격시험부의 업무는 상시시험뿐 아니라 전문 자격,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 일학습병행 외부 평가를 아우른다. 권은영 대리는 "성격이 다른 다양한 시험 업무를 경험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외국인고용지원부는 특히 건설업 취업교육과 어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영지역 EPS 현장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주일학습지원센터는 4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서부 경남 지역의 사업주 훈련과 일학습병행을 담당하고 있다.

송달영 지사장은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우리만의 가치를 만들고, 젊고 열린 조직문화 조성에 더욱 힘써 명품 지사, 연구하는 지사, 직원들이 행복한 지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HRD**



직업능력개발부



지역일학습지원부, 외국인고용지원부



자격시험부, 상시자격시험부

경남지사 직원들이 추천하는

여름 보양식



상시자격시험부
—
권은영 대리

"따뜻하고 진득한 오리탕 국물로 땀을 빼고 나면, 한여름 무더위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리고기는 허한 증상을 완화하고 열을 덜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니, 여름 보양식으로 오리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산 가포의 '동굴집'을 추천합니다. 이름 처럼 인공동굴 안에서 담백하고 고소한 오리탕을 맛볼 수 있어요. 명이나물에 오리고기를 싸서 먹으면 더욱 맛있답니다."

"여름이면 삼계탕이죠! 더위로 지친 체력을 보강하기에 삼계탕만한 음식이 있을까요? 창원에 오실 일이 있다면, 용지호수 인근의 '백제삼계탕'을 추천합니다. 든든한 삼계탕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부
—
김정한 대리



자격시험부
—
정지현 대리

"여름에는 역시 냉면이죠!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먹는 냉면이 아말로 여름 별미입니다. 창원 성산구의 '고명냉면'을 추천해요. 여러 가지 고기 토포핑을 선택해 먹을 수 있습니다. 물냉면, 비빔냉면 중 고만이라면 물 같은 비빔냉면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근한다

2018 해외취업 성공스토리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 구자경

우물 안 개구리, 세상으로 향하다

다들 가야 한다고 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무난해 보이는 학문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졸업을 앞둔 나에게 첫 해외여행 기회가 찾아왔다. 친구가 싱가포르 왕복 티켓에 당첨됐고, 손짓 발짓을 해가며 열흘 동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어울렸다. 우물 밖 세상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귀국과 동시에 장기간의 배낭여행을 결정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어학원에서 반나절 근무하는 조건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하루 5시간 영어수업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기 어학연수하러 온 게 아닌데'하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H자동차 인도법인에서 영어 상급의 인턴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봤다. 토익 점수도 없고, 영어도 중하급 수준이었지만, 면접기회를 얻었다. 하루 영어수업 중 3시간을 모의면접으로 사용했다.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강사들의 도움으로 답변을 모조리 외웠다. 갖은 노력(?) 끝에 30:1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2개월의 짧은 필리핀 여정을 마무리하고, 인도로 길을 떠났다.

인도에서의 인턴생활과 해외취업 준비

새벽 6시, 같은 숙소를 쓰는 인턴들과 자동차 제조공장으로 가는 출근버스에 올랐다. 법인장 직속 기획실에서 사업기획 및 전략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았다. 부장님 한 분을 제외하고 팀원 모두 현지인이었기에 영어로 소통했다. 회사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회사 안팎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뉴스를 읽으며 인도와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이해했다. 경쟁사 사업 전략이나 신차 출시계획 등을 파악하며 자동차 시장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짬이 나면 공장을 돌아다니며 회사가 돌아가는 과정을 보고 듣고 느꼈다. 인도에서의 1년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세상을 향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턴 계약 종료와 동시에 마지막 학기 복학을 위해 귀국했다. 국내 기업에는 일절 지원하지 않고, 해외취업 전략을 세우며 레쥬메와 커버레터를 다듬었다. 몇몇 해외기업과 면접을 진행했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직접 현지에서 직업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졸업과 동시에 싱가포르로 날아갔다. 취업활동을 하던 중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직장생활을 있는 지인과 연락이 닿아 지인 집에서 한 동안 머물 수 있게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구직활동에 나섰지만 3개월 동안 내가 원하는 자리를 얻기란 어려웠다.

K-Move가 열어 준 해외취업 기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KOTRA 무역관이 주최한 K-Move 현지 멘토링에 참여했다. 멘토링 오전 일정은 현지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멘토의 기업 견학이었다. 도착한 기업은 세계 4대 회계법인. 지난 봄, 개인 사정으로 최종면접에 응시하지 않았던 회사였다. 로비에서 맞이한

멘토는 당시 나를 면접 본 면접관이셨다. 이런 우연이...

귀국 후 코엑스에 열린 해외취업박람회에 참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분이 나를 알아보시며, 그때 멘토의 강연과 멘토링이 예정돼 있다고 알려주셨다. 강연이 끝나고 조심스럽게 내 레쥬메를 전달드렸다. 멘토링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꿈에 그리던 그 회사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게 됐다. 대표이사님과의 면접 없이 말이다. 정답은 없다. 다만,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한다.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HRD

“
멘토링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꿈에 그리던 그 회사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게 됐다.
대표이사님과의 면접 없이 말이다.
”



독자 여러분의 수기를 받습니다

직업과 꿈, 희망을 나누는 내용이라면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 kjy626200@hrdkorea.or.kr

시인 윤동주를

기억하며

윤동주문학관과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에서 태어난 윤동주의 아명은 '해처럼 밝은 아이'인 '해환'이었다. 그가 처음 지으려던 시집 제목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아닌 「병원」. 암울한 일제강점기, 운통 환자들인 세상에서 자신의 시가 병원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윤동주는 일본 후쿠오카형무소에서 광복을 불과 몇 개월 앞둔 1945년 2월 16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을 마감했지만, 그의 시집은 3년 후 세상에 나와 오늘날까지 빛나고 있다. 시인 윤동주에게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한다.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 없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좌, 우 윤동주문학관 옆의 우물(제2차시집)



운동주문학관

운동주의 흔적은 시인이 다녔던 연세대(당시 연희전문 학교), 정병욱과 함께 하숙했던 소설가 김송의 집 터 그리고 시인이 올랐던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은 운동주문학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운수도가압장과 물탱크를 개조한 운동주문학관은 2012년 문을 열었다. 약해진 물살에 압력을 가해 다시 힘차게 물을 흐르게 하던 청운수도가압장은 제1전시실인 시인채로 변신했다. 가압장 옹벽 뒤에서 발견한 2개 물탱크 중 1개는 지붕을 걷어내 운동주의 시 '자화상'에 나오는 우물로, 나머지 1개는 그가 죽음을 맞이한 후쿠오카형무소로 형상화했다. 하늘과 바람과 별이 머무르는 열린 우물(제2전시실)과 한 군데만 빛이 들어오는 닫힌 우물(제3전시실)은 고요한 사색의 공간이 된다. 운동주문학관 뒤편에는 시인의 언덕이 있다.

운동주 하숙집 터는 더 이상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시인을 추억하기에 충분하다.



운동주문학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 119
관람시간 | 10:00~18:00
휴관일 | 매주 월,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문의 | 02-2148-4175

운동주 하숙집 터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육인길 57

운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연희전문에서 함께 수학한 정병욱과 강처중이 없었다면 운동주 시집 출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운동주는 시집으로 내려했던 자신의 시 19편을 필사해 스승 이양하 교수와 벗 정병욱에게 각각 맡겼다. 자신도 원고를 갖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지만, 정병욱에게 전한 원고만이 남았다. 1944년 일본군에 끌려가게 된 정병욱이 광양에 계신 어머니에게 원고를 부탁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마루를 뜯고 향아리 안에 숨겨 놓았던 운동주의 육필 원고는 징병에서 살아 돌아온 정병욱에게 무사히 전해졌다. 운동주의 유품을 가족에게 전달한 강처중은 1947년 2월, 자신이 기자로 몸담고 있던 경향신문을 통해 운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를 발표했다. 강처중과 정병욱은 운동주가 남긴 시 31편을 묶어 1948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출간했고, 시인 정지용은 시집 서문에 '우명(無名) 운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기 한 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라고 썼다.

운동주 원고를 보관했던 광양의 주택은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다. 1925년 망덕포구에 양조장과 살림집을 겸해 지은 건축물은 등록문화재 제341호 운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으로 명명돼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HRD**

정병욱 가옥
주소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249
관람시간 | 10:00~17:00
휴관일 |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문의 | 061-797-3333

- ① 운동주문학관 외관
- ② 시인의 언덕
- ③ 운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외관
- ④ 망덕포구



스튜어드십은 위탁자의 신뢰가 우선이다



목원대 무역학과 강용찬 명예교수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청렴교육원장)



지난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20여 년간 유지해오던 대표이사직 연임에 실패하고 물러났다. 대한항공의 주식 지분의 11.56%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기타 소주주들과 연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스튜어드십(수탁자의 직무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에게 퇴직 이후에도 일정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른바 스튜어드(수탁자 또는 관리자)로서의 전문적 관리 능력과 성실한 자세를 바탕으로 위탁자(연금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투자기업의 경영권까지 개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스튜어드십 코드)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취지는 기타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 운용방향은 잘못하면 국민연금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정부(정권)가 국민연금을 통하여 사기업(私企業)의 경영권에까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스튜어드십의 기본인 수탁자로서의 성실관리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연금기금은 종업원(근로자)들의 예금이다. 연금관리자들은 현재의 종업원들의 미래 재정에 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곳 혹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봉사해서는 안 된다”(「자본주의 이후의 사회」)고 경고한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불가피하게 투자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연금가입자들의 신뢰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스튜어드십은 비단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비록 금전적인 위탁은 아니더라도 넓은 의미의 위탁자인 고객의 신뢰를 못 받으면 조직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 다시 드러커의 말을 빌리면 모든 조직은 조직 구성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 밖의 고객을 위하여 존재한다(「변화 리더의 조건」). 학교는 학생을 위하여, 병원은 환자를 위하여, 기업은 고객(소비자)을 위하여, 연금기관은 연금가입자를 위하여 존재한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

능력 있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 능력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능력이 없는 편이 낫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조직의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조직을 종종 보게 된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나 영달을 위하여 일한다면 그 국가의 국민은 불행하다. 세금을 낸 위탁자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에 대한 신뢰는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능력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도를 따지면 능력보다 성실성이 우선한다. 성실성은 정직과 공정을 기초로 한다. 능력 있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 능력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능력이 없는 편이 낫다. 유능한 전문가들이 능력을 악용하여 우리를 실망시킨 사례들은 허다하다.

도산 안창호는 국민교육의 3대 목표인 지육(智育), 덕육(德育), 체육(體育)을 말하면서 순서를 바꿔서 덕육, 지육, 체육이라고 했다. 지식교육보다 도덕교육이 먼저라는 것이다.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는 것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직하게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 모자라면 정직하게 더 능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도록 소개할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유난히 청렴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스튜어드십의 기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HRD

HRD KOREA NEWS

2019. 08

공단, DGB금융지주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및 확산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7월 16일,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DGB금융지주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NCS에 기반한 '기업인사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협력하고, 개발된 시스템은 공단의 '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참여한 중견·중소기업들에게 무상 배포한다. 김동만 이사장은 "중견·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HRDK 시민참여혁신단 1차 회의 개최



보다 나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7월 22일, 서울남부지사 회의실에서 혁신 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HRDK 시민참여혁신단'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고객과 시민·사회단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HRDK 시민참여혁신단은 올해 특별히 주요 사업의 참여 고객을 초청해 의미 있는 자리를 가졌다. 전년도 자격 취득자 수기공모

전 대상 입상자인 호남직업전문학교 박상철 교사,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입상자인 ㈜디엔텍의 양승복 학습근로자가 참여해 공단의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공단은 앞으로 HRDK 시민참여혁신단을 다양한 사업 참여 고객으로 확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5·6·7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 선정,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9년 5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김용규 제일전기공업(주) 부사장을, 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하광운 레이몰드(주) 대표를, 7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조덕형 (주)동원파츠 대표를 선정했다. 김용규 부사장은 품질 개선으로 생산을 안정화시켰고, 에너지 저감 제품을 개발해 건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하광운 대표는 국내 최초로 금형전주코어 및 ER-MOLD를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무인쇄 도광판과 LCD-BLU를 개발했다. 조덕형 대표는 해외 기업에 의존하던 반도체 장비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정

고용노동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는 체계화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절차에 관한 규정과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매년 조사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폐지 과정에 환류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가 교육·훈련 및 자격 신설 등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번 예규 제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산업 현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HRD

국가자격 수험표로 메가박스 할인받으세요!

전국 메가박스에서 국가자격 수험표를 제시하면, 수험생 및 동반 1인까지 영화 예매와 매점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 할인 기간 : 수험원서 접수(결제일자) 시부터 2개월 간
 - | 매표 : 광주상무, 광주하남, 일산벨라시타, 삼천포, 센트럴, 공주, 청라지젤 제외 전 지점
 - | 매점 : 속초, 청단, 공주, 청라지젤 제외 전 지점
- ※ 조조, 심야할인 및 할인쿠폰을 제외한 신용카드와 중복할인 가능



릴레이 도서 추천 BOOK

※ 공단의 독서경영 '북적북적'의 일환으로 공단 직원이 직접 책 한 권을 추천하는 코너

봉제인형 살인사건 다나엘 콜 열두 번째 추천도서

"여섯 명의 희생자, 하나로 꿰매진 몸통!" 충격적인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작가는 살인사건, 수사관, 반전 등 추리소설의 필수요소를 버무리며 독자가 집중을 잃지 않도록 만든다. 작가가 풀어내는 선과 악,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관점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도 매력 포인트다. 영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이니 비교해보는 것도 좋겠다. 여름방, 재미와 피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기를 추천한다.



서울남부지사 지역일학습지원부 김서환 대리

서울남부지사 독서모임 '국한독서'

우체통

박정영 | 부산

'사람이 힘이다' 섹션을 즐겨 봅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줘서 늘 제일 먼저 읽고 있습니다.

이정희 | 용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했으나, 사보를 읽고 알아가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읽으면서 하나씩 알아가겠습니다.

천지영 | 울산

'화제의 인터뷰' SBS 라디오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에서 목소리로만 듣던 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곽영심 | 부산

현재 고용정보를 볼 수 있는 좋은 정보지입니다. 7월호에서 국비지원 해외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경쟁이 필수지만 도전해 볼 장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기회인 듯합니다.

정대교 | 강원

청년기능인 취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 대구지역본부, 파이팅입니다.

<HRD KOREA>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청년 일자리 관련 설문 등 독자엽서(8월 16일 도착분에 한함) 혹은 이메일(kyj626200@hrdkorea.or.kr / 발송인 주소, 연락처 기재)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3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이준길 | 경기

'땀으로 일군 값진 인생'에 실린 신정옥 선생님을 보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도전하는 용기의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운희 | 전북

2018 해외취업 성공스토리 공모전 입상자들의 '공감 수기' 코너를 보면 동기 부여가 되어서 좋습니다.

모한나 | 인천

지난 수년간 <HRD KOREA>를 정기구독 중인 '열혈' 독자입니다. 꾸준히 애독한 덕분에 취업은 물론, 승진과 자기계발까지 쉽게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정태 | 서울

'미래를 키우다' 섹션을 통해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을 접하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체리 | 경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로 좋은 정보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보내는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수집 및 이용 목적: 엽서 당첨자 공지 및 상품발송
- 수집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 보유기간: 동의 철회 시까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HRD KOREA> 신규구독신청

<HRD KOREA 이메일 뉴스레터> 수신신청

이메일 _____

우편엽서



HRD KOREA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HRD KOREA 담당자 앞 T. 052-714-8195

4 4 5 3 8

정취선

✓ 2019년 8월 국가자격시험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8 ▶ 관광통역안내사 1, 2차 원서 접수(7.22~7.31) ▶ 손해평가사 2차 원서 접수(7.22~7.31) ▶ 변호사 2차 시험 (7.27~7.28)	29 ▶ 정기 기능사 3회 실기 원서 접수(7.29~8.1)	30	31	1	2 ▶ 기술사 118회 면접 합격자 발표	3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3차 시험(8.3~8.4) ▶ 경영.기술지도사 2차 시험
4 ▶ 정기 기사 3회 필기 시험	5	6	7 ▶ 제25회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2차 합격자 발표	8	9	10 ▶ 기술사 119회 필기시험
11	12 ▶ 공인중개사 1, 2차 원서 접수(8.12~8.21)	13	14 ▶ 주택관리사보 1차 합격자 발표	15	16 ▶ 정기 기사 4회 필기 원서 접수(8.16~8.22) ▶ 정기 기사 2회 실기 합격자 발표	17 ▶ 세무사 2차 시험
18 ▶ 소방시설관리사 2차 원서 접수(8.19~8.28) ▶ 주택관리사보 2차 원서 접수(8.19~8.28)	19	20	21 ▶ 물류관리사 합격자 발표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3차 합격자 발표 ▶ 수선물물질관리사 1차 합격자 발표	22	23 ▶ 정기 기능사 4회 필기 원서 접수(8.23~8.28)	24 ▶ 정기 기능사 3회 실기 시험(8.24~9.6) ▶ 기능장 68회 실기 시험(8.24~9.6) ▶ 제27회 청소년지도사 1차 시험
25 ▶ 청소년상담사 1차 원서 접수(8.26~9.4)	26	27 ▶ 가정교사 2차 합격자 발표	28	29	30 ▶ 정기 기사 3회 필기 합격자 발표	31 ▶ 공인노무사 2차 시험 (8.31~9.1)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1차 시험

▶ 원서 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이번 호에 실린 기사 중 가장 만족스럽고 유익했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 앞으로 <HRD KORE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사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주세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혹은 이번 호 <HRD KOREA>에 등장했던 인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 일자리 관련 슬로건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세요. (예시) 능력중심사회의 디딤돌

HRD KOREA

vol. 278
AUGUST 2019

08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앞장섭니다.



취업 고민 처방전! 과정평가형 자격

학원에서 김밥을 빨리 먹은게 취업 건가? 스트레스성 위염이 도진 건가? 왜 이리 속이 답답하지.

평 평

어? 영호야

후, 소화제 하나만 주세요.

오! 철민아 오랜만이다! 요즘은 뭐하고 지내냐?

뭐 별거 없다. 회사에서 일하거나 집에서 하는 거지.

헉! 회사? 너 취업 성공했구나. 난 아직도 학원 다니면서 스펙 쌓기 바쁘데... 좋겠다.

너도 과정평가형 자격을 이용해 보는건 어때?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현장 중심 교육 훈련

자격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설계된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해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설계된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해

이런 능력을 갖고 있군요!

고유 훈련 내용

이론	30
실무	70
기타	...

과정평가형 자격증에 교육·훈련 받은 능력단위명이 기재되어 있어 기업에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

과정평가형 취득자 취업률

연도	취업률(%)
2017	75.5
2018	74

실제로 과정형 취득자가 점령형 취득자에 비해 취업률이 높고, 취업할 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을 하고 있어.

그럼 취업을 할 때 과정평가형 취득자의 어떤 점이 어필이 되고 있는 거야?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훈련을 받았어.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

바로 말하러면 OO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할 줄 아시나요?

네!!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일에 투입이 가능하고, 점령형 취득자보다 현장 적응 기간이 1.4개월 빨라, 기업 입장에서는 재교육 비용이 적게 들게 되고, 고용유지율이 점령형 취득자의 2.1배나 되고 있어.

현장중심 NCS 채용!

공공기관

우리가 찾던 인재군!

또, 공공기관은 NCS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자격 취득 내용을 활용할 수 있어 취업에 도움이 되지.

과정평가형 자격

누구나 참여하세요!

정부

지정된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점령형 자격을 점차 축소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하려고 하고 있어!

취득자 수

연도	취득자 수
2015	51
2016	139
2017	331
2018	637
2019	906

매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수도 늘고 있고, 운영과정 수도 늘고 있으니 너도 꼭 참여해봐!

응!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

시범 대상 품목

143 품목(19년)

● 계속 확대 예정

CQ-NET이라는 과정평가형 자격 포털에서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NCS 기반 교육훈련이 확대되고 과정평가형 자격은 계속 늘어날거야!

참여 절차

선속·품목 확인

OO 산업 기사

▲ 가능사

CQ-NET.ORG

해당기관 확인

대학

폴리텍

교육·훈련에 참여

평가신청서

참여하고 싶으면 CQ-NET에 접속해서 대상품목을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과정이 운영될 기관을 확인해 개별적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한 다음 교육·훈련에 참여하면 돼.

공정한 평가

해당 교육·훈련 과정의 자격 취득을 위해 외부평가가 응시할 때 내는 응시수수료와 재료비는 한시적 면제.

교육·훈련 참여와 내부 평가를 실시한 후

공단의 외부평가를 치르면 되는데,

평균 점수 80점 이상을 치르면 자격증이 취득돼

오예

내부평가 (50) + 외부평가 (50) → 평균 점수 80점 이상이면 합격!

(능력단위별 50% 이상 합격률)

어떡! 답답하던 속이 뽕 돌렸어! 고마워!

소화제는 필요 없겠네...

말~ 취업 성공할 일게

취업! 다 잘될게약

처방전

- 취업희망자, 누구나 귀화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하기
- 현장중심 교육·훈련
- 내부·외부 공평심사

제공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취업이 빠른 취업 성공을 응원합니다!